

어촌 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자 비전 공유 세미나 개최

- 4~6월간 온라인으로 총 5차에 걸쳐 진행, 지역 활성화 사례 공유 등 추진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‘어촌 생활거점 조성 사업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월 30일(화) 지역활성화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관계자 비전 공유 세미나*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.

* 4~6월 동안 5차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(1차 세미나는 기본계획 수립지침 등 주제로 4월 개최)

이번 2차 세미나에서는 어촌앵커조직*, 지자체와 건축공간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지역 활성화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어촌 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.

* 지역에 상주하며 지역자원을 발굴하고, 인구 유입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여 생활 서비스 전달 기반을 구축하는 민간주체

어촌 생활거점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‘어촌신활력 증진사업’ 중 하나로, 중·소규모 어항을 중심으로 마을 간 교류, 주요 이용시설 등을 고려해 ‘어촌생활권’을 나누고, 생활권별로 기초 생활 인프라와 의료·교육·돌봄 등 생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. 특히, 민간 지역활동조직인 어촌앵커 조직을 활용해 지역의 수요를 발굴하고, 정주여건 개선과 신규 인구 유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할 계획이다.

*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①어촌 경제거점 조성, ②어촌 생활거점 조성, ③어촌 안전시설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(5년간 총 300개소에 3조 원 투자, 2023년 1월 65개소 선정)

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귀어를 희망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살고 싶은 어촌, 활기가 넘치는 어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어촌 생활거점 조성 사업을 포함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어촌어항재생과	책임자	과 장	고승주 (044-200-6170)
		담당자	사무관	명상순 (044-200-6171)

참고 1

어촌생활거점 조성 사업 비전공유 세미나 개최 계획

□ 목적

- 어촌생활거점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 설명 및 지역 활성화 모범 사례 공유 등
- 기본계획(공간환경마스터플랜) 가이드라인 설명, 지역활성화 모범사례 등을 설명하고 상호 논의를 통해서 지자체와 앵커조직의 사업역량 강화

□ 개요

- (일시) 2023. 5. 30.(화) 10:00~11:30 (2차)
- (방식) 온라인 영상회의
- (참석대상) 해수부, 지자체, 어촌앵커조직, 기본계획 수립 업체, 건축공간연구원, 한국어촌어항공단 등

□ 세부일정

소요시간		내용	비고
10:00~10:05	5분	인사	해수부
10:05~10:25	20분	고흥 금진 사례 발표	고흥 앵커조직
10:25~10:45	20분	거제 장승포 사례 발표	거제 앵커조직
10:45~11:05	20분	동해 대진 사례 발표	동해 앵커조직
11:05~11:25	20분	Q&A 및 자유토론	참석자
11:25~11:30	5분	마무리, 향후 일정 안내	해수부 /건축공간연구원

*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

□ 향후 계획

- 3~5차 세미나 개최(6월)
- * (3차) 충주 목행동 등 사회혁신프로그램 사례 공유 (4차) 임실 치즈마을 등 사례 공유 (5차) 홍성 장곡면 등 지역사회 협력 사례 공유

참고 2

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방안

□ 추진 배경

- ※ (어촌의 중요성) 어촌은 영토의 시작점이라는 특수한 공간적 위치로 해양영토 수호, 지역 수산물 생산 거점,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 수행
- 어촌은 낮은 소득, 양질의 일자리 부족, 취약한 생활서비스 등 열악한 생활·경제여건으로 심각한 소멸위기*에 직면
 - * 어가인구 : ('00년) 251천명→('20년) 97천명('00년 대비 △61.4%)
 - 어촌뉴딜300* 등 어업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만으로는 고령화·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어촌활력 저하 및 어촌소멸 문제 대응에 한계
 - * 낙후된 어항시설·기항지 정비 등 생활 SOC 확충 사업('19~'24, 총 3조원)
- 어촌 규모·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, 거점과 주변지역의 유기적 연계 등 기능 배분의 효율화를 통한 어촌·어민 활력 제고 필요

→ 낙후된 어촌 생활·경제 환경개선 및 신규인력 정착 지원 등 **어촌생활권 규모·유형별로 5년간 사업 대상 총 300개, 재정 3조원** **맞춤 지원**(국정과제 73)

* (유형1) 25개, 개소당 300억원, (유형2) 175개, 100억원, (유형3) 100개, 50억원

□ 사업 유형별 주요 내용

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(유형 1)

- ◆ 재정지원과 민간투자 유도를 통해 어촌 경제·생활의 중심 역할을 하는 역동적 '**어촌 경제거점 도시**' 25개소(총 7,500억원, 개소당 300억원) 조성

- ① (경제기반 확충)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도시에 수산물 유통·가공·판매 복합센터, 해양관광 단지 등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
- ② (생활서비스 공급) 마트 등 수익시설과 어업인 물리치료 등 복지시설이 융합된 생활서비스 복합시설을 조성하고, 주변 생활권으로 생활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

< 생활경제 Hub&Spoke >



※ 수산물 가공·유통 단지 등 대규모 자본 필요 시설은 민간 투자 유치, 어항 도입시설 확대, 절차 간소화 등 규제혁신 및 '어촌어항 활력펀드(가칭)' 도입 등 민간 투자 여건 개선

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사업(유형 2)

- ◆ 어촌 정주·경제 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'**자립형 어촌**' 175개소(총 1조 7,500억원, 개소당 100억원) 지원

- ① (어촌형 소득원 확대) 간편식(순살 고등어) 등 어촌공동체의 신규 소득원과 부가가치 창출*을 위한 제조·가공 및 판매시설 지원
 - * (예시) 고등어(350g) 2,000원 → 가공 순살 고등어 10,000원(부가가치 5배 향상)
 - 마을연금을 도입하는 지역에 상품개발·판매, 관광서비스 인프라 시설을 우선 지원하여 어촌공동체가 주도하는 소득 안전망 강화
- ② (어촌 생활편의 지원) 빈집 리모델링, 공공주택(10~20호) 등 청년 유입을 위한 주거 및 주민 융합 프로그램 등 유입인구의 정착 지원
 - 어촌생활권* 내 어업인 질환 예방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서비스 지원, 섬 등 조건불리지역은 무인 판매시설 등 최소한의 생활편의 확보
 - *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어항을 중심으로 생활서비스 연계, 경제생태계가 형성되는 공간 범위

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(유형 3)

- ◆ 낙후되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·안전시설 개선 등 **소규모 어촌 100개소**(총 5,000억원, 개소당 50억원) **최소 안전 확보**

- ① (생활환경 개선) 태풍·해일 등 대비 재해 안전시설 보강, 빈집 정비·공동쓰레기 집하장 조성 등 마을환경 정비
- ② (교통편의 증진) 선착장·방파제 등 여객선 접안시설 확충*, 대합실·매표소·화장실 등 필수 여객 편의시설 개선
 - * 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331개소 중 보강 필요 시설 76개소